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2월 둘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식약처, 베트남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실시[메디컬투데이]

'역직구 中 소비자' 급증...만족도 높고, 피해 경험도 높아[뉴시스]

'제53회 무역의 날' 화장품 관련 48개사 수출탑, 26명 산업훈·포장·표

창 수상[뷰티누리]

〈해외화장품시장동향〉

베트남 화장품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정보 10

협회 업무추진현황 12

행사 소식 16

회원사 뉴스 21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식약처, 베트남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 실시('16.12.5)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 소속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 등지에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연수는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수준과 수출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됨

- 관련링크:

<http://www.mdtdoday.co.kr/mdtdoday/index.html?no=276205>

북미로, 동남아로... '중국 리스크' 떨칠 화장품 수출 노력 구슬땀('16.12.5)

- 지난 10월부터 중국 내 일반 화장품의 소비세가 폐지되고 고가 화장품의 세율은 30%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는 등 중국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큼
- 과거 우리 무역업계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을 바꾸고자 다양한 체질 개선 노력을 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화장품 업계가 직면한 문제도 해결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 관련링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56870>

中 직구족, 韓 온라인쇼핑몰서 1회 최대 '600만원' 써...재이용 의사 99%('16.12.5)

- 해외 직접구매(직구) 성장세에 비례해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의 이용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인 소비자가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품질이 좋아서'(5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제품 신뢰도가 높아서'(49.8%),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48.6%) 등의 순이었음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2016120506252010107>

中 '사드 보복' 전방위 확산... 올 반덤핑관세 12건 6배 ↑('16.12.5)

- 중국은 지난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통관 거부, 관세 부과, 세무조사, 구두 지침 하달 등 전방위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중국 당국이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을 거부한 사례는 148건으로 583건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관련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53607&code=11151400&cp=nv>

'역직구 中 소비자' 급증...만족도 높고, 피해 경험도 높아('16.12.6)

-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역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직구 시장을 추월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한국 쇼핑몰 이용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피해 경험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역직구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0.1%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경험한 피해유형(복수응답)은 '배송 지연 또는 오배송·분실'(32.8%), '반품·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9.4%), '과도한 배송료 및 기타 수수료 부과'(2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관련링크:

<http://cosmoming.com/2016-뷰티엑스포코리아-개막/>

[한한령] K뷰티에 찬물? ...화장품업계 '긴장', 대응책 분주('16.12.7)

- 지난 7월 국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류금지령은 이미 업계 내에 감지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 2013년 22.1%에서 지난해 41.1%로 급증했음

- 관련링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4>

한-베트남 FTA 발효1년...교역량 17% ↑, 수출 화장품 수입 쌀국('16.12.7)

-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영향으로 한-베트남 간 교역량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됐음
-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와 미국대선 결과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개방형 통상정책을 유지하는 양국이 자유무역 확산에 앞장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고 향후 국제논의에서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관련링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61207.99002171942>

이러려고 中 사업했나"...눈치보기 바쁜 화장품 업계('16.12.7)

-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이어 롯데그룹 중국법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나서면서 화장품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음
- 한류 열풍을 타고 급부상한 'K뷰티'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며, 일부 중소 업체들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 시장에 집중돼 불안감이 더 큼

- 관련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20616301576927&outlink=1>

[규제의 덫] 중국發 쓰나미 오나...K뷰티 견제 '속도' ('16.12.8)

-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며, 올 1~10월까지 중국 향 화장품 수출액은 10억1000만달러로 전체 화장품 수출액(28억2000만달러)의 35.8%를 차지했음
- 중국은 이달부터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강화했다. 납·비소·카드뮴 함유량 등에 대한 제한 사항 및 허가 성분표 등의 관련 규범이 더욱 엄격해졌음

- 관련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0717303827252>

‘호기심과 빨리빨리’ 한국 화장품 성장 견인 ('16.12.9)

- 2004년 한류 열풍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의 지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뷰티 트렌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한국산 화장품이 아시아권을 비롯해 전 세계 뷰티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임
-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2016 (Cosmoprof Asia Hong Kong)’ 컨퍼런스에서 콘셉트아시아(Conceptasia)사의 설립자 겸 대표인 요리코 소마(Yoriko Soma)는 최근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꼽히는 한국 화장품의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호기심(Curiosity)’과 ‘스피드(Speed)’, 두 가지를 꼽았음

- 관련링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4>

‘제53회 무역의 날’ 화장품 관련 48개사 수출탑, 26명 산업훈·포장·표창 수상 ('16.12.8)

-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화장품업계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음
- 이번 ‘무역의 날’에서 국내 화장품업계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나란히 2억불탑을 수상한 가운데 총 48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코스맥스가 1억불탑, 마크로젠과 애터미, 삼화플라스틱 등이 3천만불탑, 엘애피코스메틱과 콜마비엔에이치, 코스메카, 휴젤파마, 쉐바이오텍 등이 2천만불탑, 코리아나화장품과 에프엔코, 코바스, 에스디생명공학, 코스모코스(구 소망화장품), 더샘인터내셔널 등이 1천만불탑에 선정됐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4952/cat/10>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베트남 화장품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준비 없는 성과는 모래성 -

- 바이어를 찾지 말고 파트너를 찾아야 -

□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유용한 마케팅 Tool

-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저렴한 제품과 화장품으로 충분한 제품군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임. 여기에 현지 언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간다면, 바이어와의 미팅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유용할 것임.
- 화장품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며, 대기업 브랜드 제품도 다수여서 중소기업 제품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성은 필수. 또한, 제품의 차별성이 있더라도 충분한 마케팅 전략과 투자가 없다면 시장진출은 어려울 것임.
- 단지 좋은 바이어를 만나서 수출만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방안

- 베트남 시장 특성을 인식하라
 - 베트남은 아직 화장품을 사용하는 인구가 매우 적으며,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 제품의 경우 보따리 상인들이 비관세로 들여와 더 싸게 판매하기도 하며, 제품이 유명세를 획득하면 곧 중국산 모조품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쉽지 않은 시장임. 그리고 국민소득 2000달러 수준으로 비싼 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워 가격에도 민감한 시장으로 분류됨.

○ 바이어의 요구를 충족하라

- 바이어는 팔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므로 사전에 시장성을 검증하고 싶어함. 따라서 시장성 검증 없는 대량 수출은 기대하기 어려움. 바이어가 다품종, 소량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성을 검증하고 싶어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함.
- 또한, 베트남 시장 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 및 광고허가 등 필수절차가 있어 초기 투입 비용과 노력이 수반됨. 따라서 초기거래에 있어 바이어의 이러한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는 수출의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바이어에게 비전을 제시하라

-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이며,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 제품처럼 현지에서 브랜드 파워가 없으면 더욱 힘든 경우가 많음.
- 이에 자사 제품의 고객이 누구이며, 판매하고자 하는 유통망, 가격대, 그리고 프로모션 계획 등을 먼저 제시해 바이어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됨.

○ 바이어와 파트너가 돼라

- 바이어를 단순히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로만 설정한다면, 바이어는 언제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임. 따라서 바이어와 파트너가 돼 공동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자사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화장품 관련 현실적인 유통방식

-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초기 진출 브랜드의 경우, 처음부터 유명 유통망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에 많은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Facebook과 같은 온라인 SNS를 통해 홍보와 판매방식을 채용해 인지도 확보 및 입소문 마케팅을 수행해 소비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 그 이후, 인지도와 유명세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샵(예를 들어 Guardian)으로 진출하는 것이 초기 투입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시사점

-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경쟁사 정보 및 진출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자사 제품이 과연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충분히 했는지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품의 특수성 및 단가 등이 베트남 시장에 적합하더라도 마케팅 계획 및 마케팅 예산 등을 준비해 협력할 바이어를 찾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려움.
- 많은 노력 끝에 진출하게 되면 보따리상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유사제품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책(사전에 KOTRA IP-DESK를 통해 상표 및 디자인 등록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6. 11. 11.〉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발의 안내(2016.12.02.)

-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에 대한 표기 및 광고 가능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16.12.12.(월)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에서는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6.12.02.)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기재
 -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

- 부칙 :

- 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 등에 기재된 사항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품목의 기재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우리 협회는 12월 6일(화)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에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209개사 211명 교육에 참여하였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제조판매관리자가 매년 1회씩 반드시 수료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상반기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생이 하반기 들어 크게 몰리게 되어 12월 26일(화) 추가 교육을 편성하게 되었다.

현재 12월 교육은 모두 조기 마감되었으며, 12월 26일(화) 추가 교육에 대한 사전접수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12월 26일(화)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하미풍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화장품 지식재산권 보호(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안내

- ◆ 우리협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불법모조품으로 피해가 많은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이에 모조품 유통 현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①**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대상국가: 중국, 태국, 홍콩)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 게시글 『16년 K-BRAND 보호 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 ②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과 ③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고정은 대리(Tel : 02-761-4203, Email : jenko@kcia.or.kr)

①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지원

- 중국, 태국, 홍콩 등지에서 모조품 유통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실태조사단’을 구성 및 현지 파견하여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지원

②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

- 현지 침해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모조품 유통 관련 침해 실태 조사 및 신청사에서 원할 경우 현지 정부 기관의 행정 단속 지원

※ 침해 조사 대상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③ K-브랜드 보호 컨설팅(상표 보호 및 침해구제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방	☐ 분쟁예방 전략 (현지화네이밍 등)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대응	☐ 무단 선등록 대응전략 ☐ 권리행사전략	해외 무단 先등록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보건산업진흥원)한-중 보건의료사절단 참여 기관 모집 안내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다가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국 광둥성 심천시 및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개최되는 ‘韓-中 보건의료협력 교류회’ 참여 기관(의료기관·의료기기·제약·화장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한국 의료 동반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이 행사는 韓-中FTA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중국 심천시 및 중국 칭다오시에서 주 칭다오 총영사관 및 주 광저우 총영사관과 함께 개최합니다.

- 사업명 : 한-중 보건의료협력 교류회2016
- 기간 : ‘16. 12. 5(월)~12.10(토) / 5박 6일 (부분 참가 가능)
* (심천·텐진)의료기기/화장품/제약, (칭다오)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제약
- 장소 : 중국 심천시, 칭다오시, 텐진시
- 주최 : 보건복지부
- 주관 : 보건산업진흥원,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 협력기관 : 코트라 심천·칭다오무역관, CCPIT, 심천의료기기협회, 텐진의료기기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 모집기관 : 의료기관, 의료기기·제약·화장품 기업 25개사 내외
- 프로그램 :

	의료기관	의료기기·화장품·제약
내용	. (7일) 유관기관 방문 . (8일) 한중 보건산업 협력 교류회	. (6일) CFDA 인증 설명회 . (6.8.9일) 1:1 수출상담회 . (5.7일) 현지 의료기관 또는 의료특구 시찰
장소	칭다오	심천·칭다오·텐진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한벨기에대사관) 벨기에 엔트워프 투자세미나 개최 안내

주한벨기에대사관과 플란더스투자무역진흥공사, 엔트워프 시에서는 12월 12일(월) 서울에서 '엔트워프 투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 세미나는 엔트워프의 혁신 활동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엔트워프의 투자환경, 비즈니스 협력 기회와 혁신 동향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파일의 초청장을 확인하여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시간 및 장소 : 2016년 12월 12일(월) 14:30-17:00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III룸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22

- 프로그램 14:30 등록 시작

15:00 투자 세미나

- 벨기에 플란더스의 강점 및 투자기회
- 디지털 혁신과 순환경제 정책
- 스타트업 빌리지 소개
- 각종 사례 소개

16:30 네트워킹 리셉션

- 문의 및 신청 seoul@fitagency.com로 참가자 정보 송부, +82 2 790 2481 (12월 6일 선착순 마감)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충북 오송은 국가 유일의 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LG생명과학, CJ제일제당 등 60여개의 바이오메디컬 관련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위치한 보건의료행정타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관련 6개 국책기관이 이웃해 있어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지역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위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관련 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등이 밀집해 있어 산·학·연·관이 함께 하는 세계 유일의 연구개발 클러스터입니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에서는 연구에서 제품·개발에 이르는 전과정을 지원해 주고, 입주기업은 다양한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오송은 경부·호남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과 20분 거리에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충북은 이 모든 인프라를 토대로 글로벌 우수기업들과 함께 오송바이오폴리스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락처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2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신규 회원사 소개



(주)뷰렌코리아

- ▶ 회사명 : (주)뷰렌코리아
- ▶ 대표자명 : 김 중 업
- ▶ 설립일자 : 2014년 2월 26일
- ▶ 종업원수 : 9명
- ▶ 품목 및 브랜드 : 미라클톡, 셀스토리
- ▶ 2015년 매출액 : 2,441 백만원
- ▶ 자본금 : 20,000 백만원
- ▶ 유통채널 : 시판
- ▶ 웹사이트 : www.beauren.com
- ▶ 연락처 : 02-6959-5440
- ▶

회사소개

“Beautiful:아름다움+Render:만들다”의 의미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사람들의 뷰렌코리아는 2014년 2월 26일에 창립하여 ‘신뢰’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독자적인 마이크로스피어™를 활용한 ‘미라클톡스’, ‘셀스토리’, ‘여화진’, ‘립에센스틱’ 등의 자사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